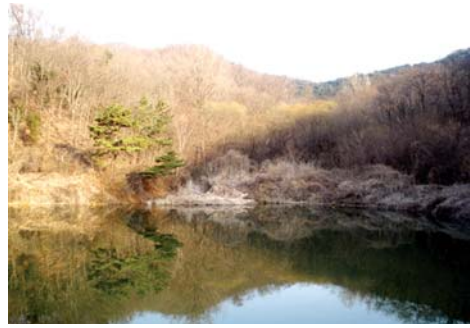


전 남

생태계 복원·수질개선...생생한 체험 학습장

생태연못 '뚝방'이 뜬다



전남도 올 143곳, 2014년까지 500곳까지 조성

개구리밭, 부레옥잠, 실잠자리, 하루살이, 소금쟁이... 수질개선과 볼거리를 제공하는 전남 지역 생태연못 '뚝방'이 올해 더욱 늘어난다.

전남도는 8월 수생생물의 보고(寶庫)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생태연못 뚝방을 오는 2014년까지 500개까지 확대하고, 올해에는 143개소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뚝방은 당초 올해 100개소로 새롭게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지난 3월 말까지 신청을 받은 결과 총 143개소가 신청함에 따라 9일부터 현지조사

를 한 후 개소당 200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이다. 생태연못 '뚝방'이 농가들로부터 인기가 높은 것은 각종 수생생물들이 쉽게 자생할 수 있어 천적의 서식처가 되고, 도농 교류체협의 장으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또 인공뚝방에 대한 수질을 주기적으로 조사한 결과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이 낮아져 시간이 지날수록 수질이 급격히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있는 셈이다.

지난 2010년 곡성과 담양, 강진지역 자연뚝방과 인공뚝방 각 3곳씩 생물의 종 다양성을 조사한 결과 자연뚝방에는 아시아 실잠자리 등 35종 463마리, 인공뚝방에는 33종 230마리가 발견돼 자연뚝방에 버금가는 생물종 다양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남도는 지금까지 뚝방 274개소를 조성했다. 유형별(기능별)로는 농사는 짓는데 쓰는 뚝방이 72%(198개소)로 가장 많고 밭작물용이 15%(42개소), 생태형이 12%(34개소)다.

전남도 전종화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농업으로 논에는 수생곤충이나 어류가 서식하게 되는데 논물이 빠지는 시기나 월동기에는 이들이 살 수 있는 연못(뚝방)이 있어야 한다"며 "옛날식으로 소박하게 뚝방을 조성해 습지를 이해할 수 있는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지금까지 뚝방 274개소를 조성했다. 유형별(기능별)로는 농사는 짓는데 쓰는 뚝방이 72%(198개소)로 가장 많고 밭작물용이 15%(42개소), 생태형이 12%(34개소)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삽니다”

200ㄹ 2만원...여수시 수매사업 실시

“조업중 인양된 폐어구, 폐로프, 폐비닐 등 해양쓰레기를 삽니다.” ‘살아있는 바다, 쉬쉬는 연안’을 주제로 하는 여수 박람회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수시가 해양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어업인들이 조업 중 건져 올린 해양쓰레기를 항구로 되가져오면 정해진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을 실시한다.

여수시는 사업비 2억원을 지원해 여수수협과 사무위탁 계약을 체결, 이달부터 수매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수매대상은 ‘수산업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 조업중 인양한 폐어구, 폐로프, 폐비닐 등이다. 해양쓰레기를 인양한 어선은 여수수협에서 배부한 마대에 담아 국동항과 돌산항으로 가져오면 된다.

수매대금은 마대 40ㄹ 4000원, 100ㄹ 1만원, 200ㄹ 2만원이며, 장어통발은 개당 150원, 꽃게통발은 개당 250원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해양 동식물의 서식환경 등 해양환경과 선박안전환경 확보 등의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해에도 1억 8000만원을 투입, 해양쓰레기 252t(100ㄹ 용 1만 마대, 통발 14만 3663개)을 수매한 바 있다.

/동부취재본부=임문택기자 mtlim@

물에 녹는 그물로 해양오염 잡는다

농수산식품부 전국 6개 시도 시범 보급

해양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키는 나일론 그물대신 유실패도 물에 녹아 없어지는 생분해성 어구가 어민들에게 보급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나일론 어구로 말미암은 어업 피해를 줄이고 고차 바닷물에 녹는 어구를 어민들에게 시범적으로 보급한다”고 8일 밝혔다.

버려진 어구나 어망 때문에 어류 서식지가 파괴되고 물고기들이 얽혀 죽는 이른바 ‘고스트 피싱’

(ghost-fishing, 고기무덤)을 방지하려는 조치다. 폐어구 등으로 인한 어류 손실 규모는 전체 어업생 산량의 10~20% 수준이다.

올해는 총 사업비 43억원(국비 30억원·지방비 13억원)을 투입해 전국 6개 시도·도에 10개 어구를 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우수한 성과가 입증된 대개류 자랑과 참조기 자랑을 우선하여 제공한다.

생분해성 어구는 박테리아, 곰팡이 등 미생물에 의해 물과 이산

화탄소로 완전히 분해되는 장점에도 나일론 어구보다 성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기술을 보완해 지금은 어획 능력이 크게 개선됐다고 농식품부가 전했다.

생분해성 수지를 활용한 어구는 지금까지 대개자랑자랑, 참조기자랑, 병어자랑 등 7종과 꽃게통발, 붉은대게통발, 낙지통발, 새우통발 등 통발 5종, 문어단지 1종 등 모두 13종이 개발됐다. 청어자랑, 임연수어자랑 등 4개 자랑은 현재 개발 단계에 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lee@

14개국 214개 기관·기업 참가 신청

나주 국제농업박람회 후원·협찬도 잇따라

올 가을 나주에서 열리는 2012국제 농업박람회에 기관·기업의 참여 신청과 후원·협찬이 잇따르고 있다.

2012국제농업박람회 조직위원회(위원장 박준영 전남지사)에 따르면 3월말 현재 부스 대여비의 30%를 할인해 주는 조기 참가신청을 받은 결과 국내 158곳, 국외 56곳 등 214개 기관·기업이 신청했다.

또 미국·프랑스·네덜란드·이탈리아·스위스·일본·중국 등 14개국에서 당초 목표(50개)보다 12%가 많은 56개 기관·기업이 신청해 국제행사로서의 면모도 갖추게 됐다.

조직위 관계자는 “국내에서도 전국 시도와 도내 각 시·군이 참가 신청

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참가 신청 마감 기간인 6월 말까지는 300개 이상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전망했다.

후원·협찬기업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12월 지식경제부로부터 지정 기부금 대상으로 승인을 받아 후원·협찬을 받은 결과 현재 한국마사회 등 7개 기관·기업에서 1억6000여만원의 후원·협찬금이 접수됐다.

한편 국제 농업박람회는 ‘녹색미래를 여는 생명의 세계’라는 주제로 오는 10월 5일부터 29일까지 25일간 나주시 산포면 소재 전남도 농업기술원에서 개최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학교급식 친환경 위반 3농가 적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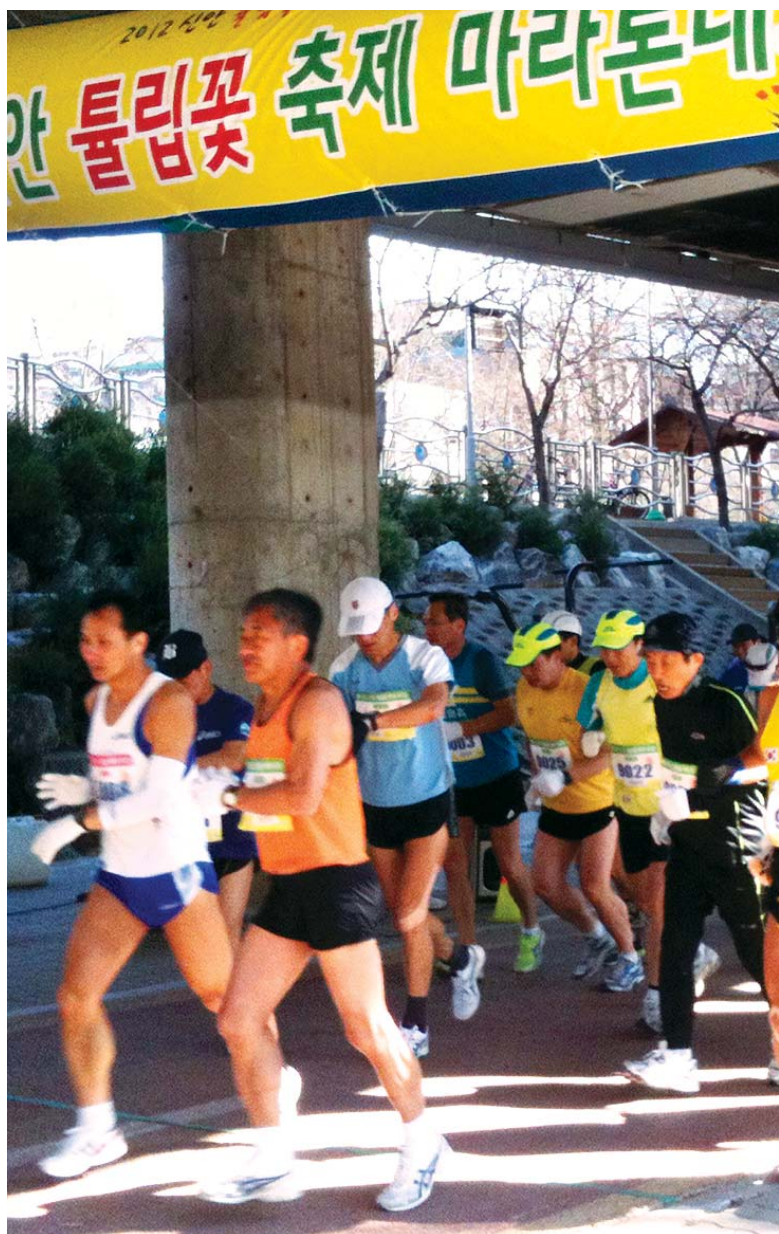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장병수)은 최근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공급업체 일제조사를 실시, 인증이 취소됐음에도 인증품으로 출하한 3농가(말기)와 비인증품을 구입해 인증품(무항생제 계란·발아현미)으로 판매한 유통업자 2명을 적발, 사법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생산과정 조사에서 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가의 안전성 분석 결과 농약이 검출된 1농가와 인증필지에 화학합성농약을 살포한 농가 11개소

를 적발,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남지원은 학교급식 인증품 공급업체와 계약농장 현황 자료를 파악한 후 2단계로 인증품 공급업체와 단체급식 학교를 방문해 인증품 구매량·판매량을 대조 확인 등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3단계로 1·2단계에서 파악된 계약재배 생산자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에 생산과정의 인증기준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신안틀림축제 마라톤

2012 신안틀림축제(4월 20일~29일)를 기념하는 마라톤대회가 지난 7일 오전 서 울 보라매공원에서 열렸다. 이날 대회에는 폴코스, 10km 등 4개 부문에 전국 마라톤 동호인 1000여명이 참가해 쾌한 불바람을 맞으며 한강변과 인양천변을 달렸다.

도농기원 농촌 청년사업가 양성 성과

지원농가 평균매출 1억4000만원·이익 4500만원...올 11명 추가 선발

전남도 농업기술원은 지난 2010년부터 18세이상 39세이하의 젊은 청년 중 농업분야에 신규창업을 원하거나, 가공유통 분야에 사업확장을 원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창업활동에 필요한 일부 운영비를 지원하는 ‘농촌청년사업가 양성 프로젝트’를 추진, 성과를 거두고 있다.

도 농업기술원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지난 2011년 20명의 예비 창업농을 선발한데 이어 올해 11명을 추가 선발했다.

도 농업기술원이 지난 2010년도에 지원했던 농가들을 대상으로 성과를 분석한 결과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진과 마케팅 차별화를 통해 지원농가의 평균 매출액은 1억4000만원, 매출이

익은 45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성 심상농원 정경모(31) 대표는 지난 2010년 9월 귀농한후 창업 지원 사업을 통해 농원내에 무선 인터넷을 설치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해 농산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고객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신선도가 높은 농산물을 최대한 빠른 시간에 배송하고 있다. 그 결과 창업 1년만에 매출액 1억원을 달성했고 생산량의 80%를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온라인 고객수가 2200명에 달하고 있다.

화순 ‘쌀집 아저씨네’ 장형준 대표는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현미의 영양을 고스란히 가지고 밥맛은 백미와 같은 ‘황금눈쌀’을 탄생시켰다. 유기농·무농약 인증쌀을 7분도로 도정해

쌀눈을 살린 ‘황금눈쌀’을 브랜드화한 것이다. ‘황금눈쌀’ 가격은 10kg 한 포대에 유기농쌀은 4만8000원, 무농약쌀은 3만9000원으로 사업전에 비해 무려 1.7배 비싼 가격에 판매, 매출액이 2.2배 증가했다. 올해 지원사업에는 ▲박호박과 산채류를 이용한 다양한 호두과자 개발(해남군 이용희) ▲차 제품의 상품구성 다양화와 티파티를 활용한 고객과의 소통마케팅(보성군 최수수) 등이 선정됐다.

전남도 농업기술원 조동호 기술경영연구실장은 “선발된 대상자에게는 가동 및 경영·마케팅 개선과 수확관리 등에 필요한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해 성과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Chilman brand waterproofing products. It features the text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and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along with images of construction sites and product containers.

Advertisement for Galsan Primo hair salon. It features the text '광주·전남 기능장1호 대산프리모남녀가발', '21년 가발 명가', and '특수가발 별매!!!'. It includes portraits of staff members and a map of the location.